

목표달리다

군산경찰서, 경찰의날 기념식 개최

군산경찰서는 지난 21일 4층 대강당에서 경찰관 협력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경 7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2016년 치안성과 전국 1위 소식이 더해진 군산경찰의 이번 경찰의 날 기념식은 어느 해보다 직원들의 자긍심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개최되면서 의미가 컸다.

참석한 내빈과 직원들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된 기념식에서 김동봉 서장의 대통령표창 수상 장면을 생방송으로 함께 시청하며 축하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임영주 경무계장이 국무총리표창을, 정휘철 사이버팀장과 나운지구대 박태균 경위가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받는 등 그 동안 경찰발전과 치안에 힘쓴 총 107명의 경찰관이 상을 수여받았다.

또한 조희민 경찰발전위원, 양동학 치안정책위원이 경찰청장 감사장을 수여 받는 등 경찰행정 발전에 동참한 협력단체원 22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대 '사랑의 책 나눔 한마당'

군산대학교가 학내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책 읽는 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해 학생 및 교직원 대상으로 '사랑의 책 나눔 한마당' 행사를 실시한다.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군산대학교 중앙도서관 지하 1층 특성화자료실 앞 로비에서 진행되는 이 행사는 구성원 간 지식 및 정보공유를 통해 공유문화를 확산하고 대학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된다.

올해 행사는 2회째로, 군산대학교 도서관은 이날 행사를 통해 기증받은 교양 및 전공 도서 500권을 1인 2권씩 선착순 무료 제공하게 된다.

권오신 도서관장은 "매년 책 나눔 행사를 실시하며 캠퍼스에 공유와 기부문화를 확산시켜왔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기자

한국부인회 익산시지회 장학금 마련 의류바자회

한국부인회 익산시지회는 어려운 청소년들의 장학금 마련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익산시 영동동 852-1(코리안전 1층)에서 여성 의류바자회를 개최한다.

이번 여성 의류바자회는 가을·겨울 신상품과 다양한 이불상품을 포함해 백화점에 납품되는 유명브랜드 의류를 유통과정 없이 판매해 좋은 웃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다.

한국부인회 신혜경 회장은 "웃으로 특별한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8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한국부인회 익산시지회는 1981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35년째를 맞고 있으며, 수익금은 연말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자원봉사센터, 천연재료 생활용품 만들기 보수교육 진행

익산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21일 천연재료 생활용품 만들기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14일 교육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이나 저소득층 세대들에게 제공할 생활용품들을 천연으로 직접 만들어보고 선물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유해성분 차폐가 이슈화 된 가운데 이번 교육은 시작 전부터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들의 큰 호응과 관심이 이어졌다. 이날 교육에는 (유)함해국의 유은기 팀장이 강사로 초창대 차와 및 주방세제, 샴푸 등을 천연으로 만들어 보관 및 제조법을 설명했다.

이날 천연 생활용품 만들기 보수교육을 마친 자원봉사자들은 '천연에서 방출한 것처럼 차와와 공기청정제 등 여러 생활용품들에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구입하는데 많은 고민을 했었다. 안전한 생활용품을 만드는 법을 알 수 있었던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내항

침몰선박 방치 선박안전 위협

해당선사·관련기관 1개월 지나도록 인양계획 등 대책 내놓지 못해



지난달 19일 군산시 내항에 정박 중이던 비저선(314)이 정박용 줄이 끊어지면서 인근을 표류하다 동백대교 인근 해상에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선박운항이 빈번한 항로에 비저선이 침몰한 채 방치되고 있어 선박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군산시 내항에 정박 중이던 비저선(314)이 정박용 줄이 끊어지면서 인근을 표류하다 동백대교 인근 해상에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침몰된 비저선은 해수면이 낮아지는 간조시간에는 육안으로 확인 되지만 만조시간에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곳은 하루에도 수 십척의 선박이 운항하고 있는 항로로 선박들이 2차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이 비저선은 선체가 완전히 뒤집힌 상태여서 언제 인양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로, 이 항로에 익숙지 않은 선박들은 언제든지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하지만 해당선사와 관련기관은 1개월이 지나도록 인양계획 등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어 선박종사자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지난 2015년 9월 군산 어청도 해상에서 4천톤 화물선이 침몰된 채 방치된 모래채취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선원 18명이 바다에 빠져 해경에 구조됐다.

당시 모래채취선은 같은해 1월 침몰해 선수 부위만 6m가량 물 위로 올라와 있다.

이와 관련 군산해수청 관계자는 "해당 선박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관계로 2일까지 인양 의사와 근저당권에 대한 의사를 밝힌 것을 요구한 상태"라며 "근저당권 포기나 선주의 선박 말소 신청 등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인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기자

인문사회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선정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원장 김도중 총장)이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는 2016년도 인문사회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지난 40여 년에 걸친 학문적 성과를 관련학계로부터 높이 평가받은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은 1974년 원광대 교직원 연구소로 설립돼 지금까지 213회의 월례연구발표회와 80회에 이르는 국내학술대회, 38회의 국제학술대회 개최 실적은 원불교와 한국 신종교 및 종교문화에 관한 전문 학술지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를 68호까지 간행하고, 연구총서 총14권 간행이라는 연구실적을 쌓아왔다.

또한, 2010년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연구사업에 선정된 '원광대 마음인문학연구소'가 국내 굴지의 인문학 연구소로 자리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2013년에는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부터 '한국신종교사상연구' 사업을 수주하는 등 근대 한국종교연구의 메

카로 자리 잡았다.

특히, 지난 4월 원불교 개교 100주년 및 원광대 개교 70주년을 기념하는 '종교, 문명의 대전환과 큰 작곡'이라는 대주제의 국제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학계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으며, 일본 불교대학을 비롯해 한국의 대화문화아카데미, 화쟁문화아카데미, 무등공부방, 모심과 살림연구소, 무위당 기념관 등 국내외 학술 및 시민사회 단체에도 다양한 학술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같이 원불교를 비롯한 근대 한국종교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으로써 실적을 쌓아온 원불교사상연구원이 이번에 종교학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대학중점연구소에 선정됨으로써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수준의 종교전문 연구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향후 6년 동안 매년 2억 2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근대문명 수용 과정에 나타난 한국종교의 공공성

재구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원불교사상연구원은 근대 한국종교가 근대문명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분석해 문명의 대전환기에 필요한 한국종교 공공성의 재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사업 수행으로 문명 전환기의 회통과 조화의 세계 시민적 보편윤리를 확립해 인류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책임자인 박맹수(원불교학과 교수) 부원장은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인류 문명이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세계관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고, 개인이나 집단, 단체와 타자, 공과사, 민족과 세계,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생하면서 평화를 구축하는 공공성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중점연구소 선정은 계기로 한국종교의 시민적 공공성(公善性) 구축에 이바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적 수준의 종교전문 연구기관으로 우뚝 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기자

고군산군도 연결하는 6개 교량 명칭 최종 결정

신시해안·신시·고군산대·무녀·선유·장자교 등



고군산군도를 연결하는 6개의 교량 명칭이 최종 결정됐다.

군산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지난 20일 국가지명위원회를 개최하고, 고군산대교 6개 교량 명칭 심의를 통해 '신시해안교', '신시교', '고군산대교', '무녀교', '선유교', '장자교'로 명칭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고군산군도의 특색과 지리적 위치 등을 포함한 교량 명칭을 반영하고자 시민들을 대상으로 명칭 공모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우수 명칭으로 선정된 '몽돌교', '신시교', '고군산부녀대교', '무녀해안교', '선유교', '허하교'를 시 지명위원회에 상정했다.

국가지명위원회는 6개의 교량 명칭 중 5개 교량은 도착지의 지리적 위치를 반영해 결정했으며, 고군산군도의 3번째 교량인 단등교(가칭) 명칭을 고군산대교로 결정하게 된 이유로 국

내 최초의 1주담 현수교이자 미국 스페인·중국 등 5개만 존재하는 교량으로 그 의미만으로도 고군산군도를 대표할 수 있는 교량인 점을 높이 샀다.

유상준 군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고군

산군도 6개 교량 명칭을 국가기본도에 신속히 반영하고, 지명유래 등의 세부정보를 공개해 주민 및 고군산군도를 찾는 관광객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문정근기자



EBS 모여라 덩동대 공개방송

군산예술의전당서 내달 9일 3회

군산예술의전당은 어린이들의 영웅인 번개맨과 번개걸 등을 한자라에서 만나볼 수 있는 EBS 모여라 덩동대 공개방송을 오는 11월 9일 3회에 걸쳐 대공연장에서 진행한다.

이번 공연은 전국 시 단위 최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군산 인증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EBS 모여라 덩동대 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공연과 춤, 노래, 다양한 지식과 무한한 상상력, 감성 등을 키워주며 어린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최장수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지난 16년간 800여회의 공연을 통해 160만명의 관람객을 자랑하는 EBS의 대표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번 공연은 번개맨, 마리옹, 공공조이, 나잡난, 더잡난 등 TV속 주인공들을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지난해 7500여명이 공연 관람을 신청해 공개녹화 중 가장 높은 방청권 경쟁률인 22:1을 기록하며 그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번 공개방송 방청권은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EBS 모여라 덩동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연령은 2008년 1월생부터 2013년 12월생에 해당하는 4~9세 어린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예술의전당관리과(063-454-5530) 또는 EBS 모여라 덩동대팀(1588-1580)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근기자

원광대 생명환경학부 김옥진 교수 연구팀

치매 개선에 반려견이 주는 효과 규명



원광대학교 생명환경학부 김옥진(사진) 교수 연구팀이 치매 개선에 반려견이 주는 효과를 규명했다.

김옥진 교수와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연구팀은 치매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반려견을 활용한 동물매개치료를 프로그램을 2개월간 적용해 치매 환자의 인지기능 향상과 우울감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효과를 확인했다. 반려견이 주는 영향을 통해 치매 환자의 증상 개선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김옥진 교수 연구팀의

활동은 KBS1-TV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오는 28일 방영될 예정이다.

한편, 원광대는 2007년 전국 최초로 보건보안의학대학원에 동물매개치료 치료학과를 개설했으며, 그동안 반려견을 포함한 동물인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이점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연구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김옥진 교수는 "원광대는 그동안 동물매개치료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어 앞으로 더 큰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며, "이번에 방영되는 내용은 국내 최초로 반려견이 주는 이점들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방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

청소년 통일안보현장견학·체험활동 실시

대통령 자문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회장 김영배)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1박2일간 관내 중학생 33명을 대상으로 '2016 청소년 통일안보현장견학 및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체험은 통일준비를 위한 청소년의 긍정적 역사관과 통일 안보의식을 키우고 선진 통일한국 창조에 기여할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추진됐다.

참가한 청소년들은 철원 제2땅굴과 평화전망대, 백마고지, 노동당사 등 분단현장을 둘러보며 시대의 아픔과 통일의 중요성을 배웠다.

통일학습에 참여한 익산중학교 전하영 학생은 "난생처음 군복을 입고 현장교육에 참가하게 된 것이 자랑스럽고 평소 학교공부로 인해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했는데 현장견학을 통해 남북의 통일문제가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영배 협의회장은 "아이들이 통일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앞으로 더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는 통일안보현장견학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 나트륨·당류 줄이기 시민 참여캠페인

익산시는 나트륨·당류 줄이기 시민 참여 행사인 '짠맛·단맛을 줄이세요' 인성이 달콤해 집니다 캠페인을 오는 28일~29까지 안일간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천만송이 국화축제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시민의 건강한 식습관 개선 운동의 일환인 나트륨·당류 섭취량 줄이기 운동 확산을 위해 나트륨과 당류 줄이기에 대한 정보를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한다. 짠맛·단맛 미각 테스트를 비롯해

영상상영, 나트륨·당류 줄이기 홍보물 전시 및 배부 등의 내용으로 부스를 운영한다.

박종환 식품위생과장은 "앞으로 나트륨·당류 줄이기 실천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건강을 위해 단·짠맛 줄이기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익산시는 2017년까지 성인 1일 나트륨 섭취량을 3000mg(소금 9g) 이하로 낮출 것을 목표로 나트륨·당류 줄이기 사업을 추진한다.

/익산=장양원기자